

新國際秩序 形成과 韓·美關係 發展 方向

金 忠 男*

目 次

요지
轉換期에 대한 韓·美關係
시련과 좌절속에 發展되어온 韓·美關係 110年
대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
不安定 要因이 상존하는 兩國 國民意識
包括的 同盟關係로 發展되어야 할 韓·美關係

〈요 지〉

공산진영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汎世界的으로 추진한 봉쇄정책의 일환 속에서 韓·美間 同盟關係는 形成되었고 한국은 共產勢力에 대항하는 중요한 전진 기지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막대한 軍事的·經濟的 원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몰락으로 冷戰體制가 붕괴되고 軍事力보다 經濟力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안보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미국의 對外戰略은 전반적으로 재조정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의 戰略的 가치는 약화되었고 북한 核問題가 해결될 경우 韓·中修交, 日·北韓 修交, 美·北韓 關係 진전등 東北亞 秩序의 根本的 재편의 불가피할 것인 바, 韓·美關係도 새로운 國際秩序 구축이라는 각도에서 새로이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70~80년대중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발전되어 온 韓·美關係는 제6공화국에 들어서 전례없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는 획기적 民主化, GNP 면에서 세계15위 수준의 경제력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서,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韓·美 양국은 한국의 걸프戰 지원과 APEC 서울회의 등 汎世界的차원에서 물론 東北亞 秩序 재편 등 지역문제 및 북한의 核問題를 위시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상의 協助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지난 4년간 6차례의 頂上會談을 통해서 安保中心의 同盟關係로부터 경제, 과학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韓·美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양국민간 韓·美관계에 대한 목표와 동기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반미감정이 미국인들의 반한감정을 초래하고 있고, 양국민간 접촉이 증대하면서 문화적 차이등으로 인한 갈등과 오해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국민간 상호 인식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은 냉전체제하에서 형성된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하는 과정에 있으며, 韓·美關係도 냉전이후 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 차원에서 재정립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전환기에 즈음하여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내다 보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韓·美關係의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韓·美關係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韓·美關係를 냉정적 사고에 탈피하여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포괄적 동맹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韓·美 양국간 공동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民間外交를 통해 양국민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여건상 遠交近功의인 외교전략은 21세기에도

불가피하며, 미국의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한국은 긴밀한 韓·美關係를 지속 발전시켜, 이를 축으로 다가올 아시아·태평양 시대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轉換期에 처한 韓·美關係)

韓·美間에 공식관계가 수립된지 지난 5월 22일로서 110년이 되지만, 본격적인 同盟關係는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美國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蘇聯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폈으며, 韓國과의 同盟關係는 美國의 이러한 汎世界戰略의 일환에서 이룩되게 된 것이다. 韓國은 그 戰略的 位置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중요한 전진기지의 하나로 간주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美國은 北韓의 남침으로 파멸직전에서 韓國의 생존을 보장해 준 결정적 보호자이자 막대한 軍事的·經濟的 援助를 제공해 온 지원자였다.

그러나 이제 蘇聯은 붕괴되었고 東歐共產主義는 소멸되었다. 共產主義가 팽창되어 세계를 지배하리라던 것은 환산으로 끝났다. 中國을 비롯한 아시아공산주의는 아직도 체제상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歷史的 대변화에 대하여 수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中國, 北韓, 베트남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開放과 改革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東西冷戰의 상징이던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제는 없어졌으며 동유럽은 民主化와 資本主義化를 통해서 하나의 유럽으로 統合되고 있다. 러시아를 위시한 과거 共產圈의 여러나라들은 과거 敵對關係에 있었던 서방국가들과 交流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冷戰時代를 통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戰略的 對決地域 이었던 中東에서는 걸프戰 승리를 계기로 美國을 중심으로 한 市場經濟圈이 주도적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美國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40여년간 추구해 온 戰略的 目標은 완전히 달성되었

다. 蘇聯과 軍事的 경쟁을 해 온 美國은 이제 세계 유일의 超強大國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격변하는 國際秩序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軍事力 중심의 冷戰體制가 붕괴되면서 軍事力의 중요성 보다는 經濟力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美國의 國際的 影響力도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日本 經濟力의 급격한 浮上, 統一獨逸의 영향력 확대, 구주공동시장(EC)의 출현 등으로 국제질서속에서 美國이 차지하고 있던 상대적 위치가 변화를 겪고 있다. 유럽국가들이나 日本은 冷戰體制하에서는 美國의 軍事的 보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貿易摩擦 등 經濟分野에서 美國에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냉전종식으로 美國에 대한 安依存度가 낮아짐에 따라 독자적 노선을 뚜렷이 하고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安보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美國의 對外戰略은 國際情勢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지난 40여년간 과도한 軍事力 維持와 지나친 國際的 役割로 經濟의 國際競爭力 弱화, 3조억달러로 추산되는 財政赤字 등 심각한 國內問題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5월초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인종폭동도 그러한 國內問題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國際情勢와 심각한 國內問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美國의 대통령선거는 미국의 國際的 役割을 축소시키고 國內問題에 우선을 둘 것을 주장하는 保護主義的 분위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지난 몇십년동안 美國指導層은 蘇聯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대한 軍事力을 유지하고 폭넓은 國際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은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이제 蘇聯의 위협이 소멸된 상황에서 美國이 계속해서 海外에 軍事基地를 유지하고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美國軍인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美國의 國際的 役割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사라지고 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軍事費 減縮으로 平和分擔金(peace dividend)을 國內問題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韓·美 同盟關係는 蘇聯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에서 형

성되었으나, 소련의 위협이 소멸된 상황에서 韓國의 戰略的 가치는 그만큼 약화되었다. 北韓의 核開發問題가 美國이 주도하는 新世界秩序에 대한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韓·美 安保關係의 기본골격은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北韓 核問題가 해결될 경우 韓·中修交, 日·北韓修交, 美·北韓關係進展 등 東北亞秩序의 근본적 재편이 멀지않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美·日安保關係도 漸進的으로 변화할 것이며, 필리핀의 미국 海·空軍基地도 撤收될 예정으로 있는 바, 韓·美關係는 냉전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國際秩序 構築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再定立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¹⁾

〈시련과 좌절속에 發展되어 온 韓·美關係 110年〉

1882년 5월 22일 韓·美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될 당시 大院君의 쇄국정책과 '斥洋斥倭'를 주창하는 儒林들의 반대로 對外的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高宗皇帝도 韓·美間의 外交關係 樹立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당시 대한제국은 日本, 러시아, 그리고 청나라간의 세력각축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1876년 日本의 강요에 의해 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당시 청나라는 大韓帝國에 대한 日本의 影響力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韓·美間에 制約을 締結하도록 권유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지배층은 韓·美條約을 自主獨立을 보호하는 장치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은 영토적 야심이 없으며 韓

1. 새로운 世界秩序 形成에 따른 韓·美關係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文들을 참고할 것. 韓國의 입장에서는 朴慶緒, "東北亞 신질서와 韓·美關係," 「展望」, 58(91. 10), pp. 90-95; 차영구, "韓·美軍事關係와 韓·蘇關係의 추이," 「國際問題」, 22권9호(91. 9), pp. 85-97; 최혁, "韓·美 通商摩擦과 우리의 對應方案," 「외교」, 19호(91. 9), pp. 83-90; Park, Kyoung-Suh, "Evolving U.S. Asian-Pacific Strategies and Its Implications for U.S.-Korean Relation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5, No. 3 (Fall 1991), pp. 457-470; 裨肯燦, 「最近 國際情勢의 變化와 韓·美關係」(외교안보연구원, 1991) 등을 참고할 것. 한편 美國의 입장에서는 도널드 맥도날드, "新世界秩序에서의 韓·美關係," 「國際問題」, 22권 8호(1991. 8), pp. 13-17; 로버트 스칼라피노, "한국과 미국, 파트너 관계를 향하여," 「사상」, 제3권 제1호(1991. 봄), pp. 145-164; Robert L. Pfaltzgraff, Jr.,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in a New World Order,"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pp. 143-162 등을 참조할 것.

國의 獨立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능력이 있고 우호적이며 인정많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強大國들에 둘러싸인 韓國의 지정학적 여건상 10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強大國인 美國과의 同盟이 韓國의 國家利益保護에 기본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美國에 대한 韓國의 일방적 기대와 의존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당시 韓國에 대해서 특별한 利益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支援에 대한 韓國의 일방적인 기대는 환상과 배신감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美國은 日本의 韓半島 영향력 확대기도에 대하여 「不介入 및 中立」政策을 취했으며, 1905년 카스라-태프트 祕密覺書에 의해 美國은 大韓帝國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서 韓·美間의 外交關係는 단절되고 말았다.

일본식민통치에서 韓國을 독립시킨 해방자로 등장한 美國은 美·蘇 兩國에 의한 韓半島 강제분할을 허용한 이래 그 후 몇년간의 美國의 對韓政策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소련은 韓半島 共產化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주했으나, 美國은 韓國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준비도 없이 軍政에 임하여 蘇聯 등 聯合國의 주장에 따라 韓半島 신탁통치안을 수용하였고 美·蘇 共同委員會 運營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1949년 中國의 共產化, 1950년 北韓의 南侵을 계기로 美國은 韓國戰爭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으며, 韓國은 日本과 더불어 아시아에 있어서 美國의 중요한 前進基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0년으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韓·美關係는 韓國戰爭과 월남전을 계기로 긴밀한 同盟關係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기 보다는 수직적 관계로서 韓國은 美國의 外交安保政策을 대체로 수용하였으며 美國은 經濟·軍事的 援助를 통해서 韓國을 支援하였다. 6.25戰爭中 3만4천여명의 美國軍인들이 희생되었으며, 1953년 韓·美 相互防衛條約이 체결된 이래 美國은 韓國에 대해 110억달러의 經濟·軍事的 援助를 제공했다.

그러나 韓·美關係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갈등의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美國에서는 월남 패망후 美國의 國際的 役割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으며, 특

히 韓國의 人權問題와 國內政治問題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駐韓美軍撤收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등, 韓·美關係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보수적 정책으로 韓·美間의 政治安保關係가 다시 긴밀해 지게 되었지만, 韓國의 貿易黑字로 인한 양국간 통상마찰이 美國에 대한 일본의 經濟的 膨창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 韓國을 “제2의 日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다.”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

제6공화국에 와서 韓·美關係는 전례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획기적인 民主化로 韓國의 人權問題 등 國內政治에 대한 美國의 시비는 사라지게 되었고, 韓國의 걸프戰 支援과 APEC 서울회의를 통해서 汎民主的 차원에서 韓國과 美國은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北韓의 核問題를 위시한 韓半島 問題 해결에 있어서 韓國과 美國은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처럼 韓·美間에 긴밀한 協議와 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등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韓國은 세계에서 GNP 규모로 15위수준에 있는 중요국가이며 美國 상품의 7번째 主要輸出國이고, 美國 농산물의 세번째 輸入國이다. 경제면에서도 美國이 결코 韓國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韓國의 國力은 신장되었다.

韓國의 입장에서 볼 때도, 韓·美關係는 기존의 外交安保關係 뿐만아니라 여타부분에서 그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輸出商品의 4분의1 이상을 흡수하는 最大의 수출시장이며, 군사과학기술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면에서도 주요한 의존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난 40여년간 海外유학생의 80% 이상을 美國에 보내는 등, 교육,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에는 폭넓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이민으로 미국에는 130여만명의 교민들

2. 韓·美關係 100년에 대해서는 具永祿 外, 「韓國과 美國: 過去, 現在, 未來」, (傳英社, 1984)를 참조할 것. 韓·美關係 發展의 분야별 평가는 극동문제연구소 編, 「韓國과 美國: 政治·安保, 經濟, 社會·文化」(극동문제연구소, 1988)를 참조할 것.

이 살고 있어 韓·美關係는 國民關係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몇년간 反美데모 등으로 韓·美關係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韓·美關係가 더욱 긴밀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과거 30~40년전에 비해 兩國關係는 종속적 성격이나 불평등적 성격이 크게 줄어들었고 兩國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 6차례의 頂上會談을 통해서 韓·美兩國은 안보중심의 同盟關係로부터 經濟, 科學技術을 포함한 包括的 파트너쉽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작년 7월 워싱턴과 금년초 서울에서 개최된 頂上會談에서 韓·美 兩國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특히 東南亞 秩序 개편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반문제를 協議했으며, 韓·美間의 지속적인 共同步調가 兩國의 장기적 국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특히 양국은 北韓의 核開發 沮止 등 懸案問題와 관련하여 작년 9월 부시대통령의 戰術核武器 撤廢宣言, 이에 뒤이은 盧大統領의 韓半島 非核宣言(11월 8일)과 韓國內 核不在 宣言(12.18), 그리고 금년도 탐스피리트 훈련 취소 등 일련의 긴밀한 협조로 核問題 解決과 南北關係 進전을 주도해 왔다.

이처럼 韓·美間의 협력이 긴밀할 수 있게 된 것은 韓國의 民主化로 韓國의 對外的 위상이 크게 提高되었을 뿐만 아니라, 北方外交와 南北 關係改善 등 한국의 外交的 이니셔티브를 美國이 적극 支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外交的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 작년말 서울에서 개최된 APEC 총회에서 中國, 臺灣, 香港을 동시에 가입시키는 등, 한국의 주도적 역할로 亞·太地域에서 韓國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韓國의 北方外交와 南北關係改善 노력으로 韓·蘇修交, 韓·中關係 進展은 물론 日·北韓關係, 美國·北韓關係 등 東北亞 秩序가 根本적으로 改編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韓·美間의 協調는 中心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韓·美兩國은 外交安保 分野에서 정기적으로 政策協議會를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經濟·通商關係에 있어서도 韓·美 經濟協議會 運營, 科學技術協力協定 締結 등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不安定 要因이 상존하는 兩國 國民意義〉

韓·美關係가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兩國國民間의 상호 이해가 協力 중요하다. 더구나 兩國의 外交政策은 國民輿論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韓·美關係에 대한 양국민의 인식은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불안정 요인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첫째, 兩國國民은 韓·美關係에 대한 목표 또는 동기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말부터 韓國은 美國의 보호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이전까지 美國의 지원없이 한국의 독자적인 安保와 發展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美國은 韓國의 특별한 후견자와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의 미국으로부터 보호 또는 특별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世界 超強大國인 美國에게 있어서 韓國은 하나의 동맹국일 뿐, 우리가 미국을 보는 비중으로 그들이 우리를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도 세계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게는 일개 지역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韓國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的 反美感情이 美國人의 反韓感情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美國은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표방해 왔지만 가끔 우월적 입장에서 한국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韓國人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래로 美國은 韓國의 人權問題와 國內政治問題를 거론하여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국력신장으로 높아진 韓國人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에 출생하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안보 인식을 가지고 있고, 통일을 중시하는 民族主義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기성세대의 지나친 對美의존적 자세를 비판하며 駐韓美軍을 통일의 장애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 중반이후 빈번해진 反美데모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표면화 되었다. 美國國民들은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고 美國公館 등이 공격대상이 되는 뉴스를 빈번히 접하면 反韓感情은 물론 韓·美同盟關係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美議會에서 駐韓美軍 減縮問題가 거론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韓國은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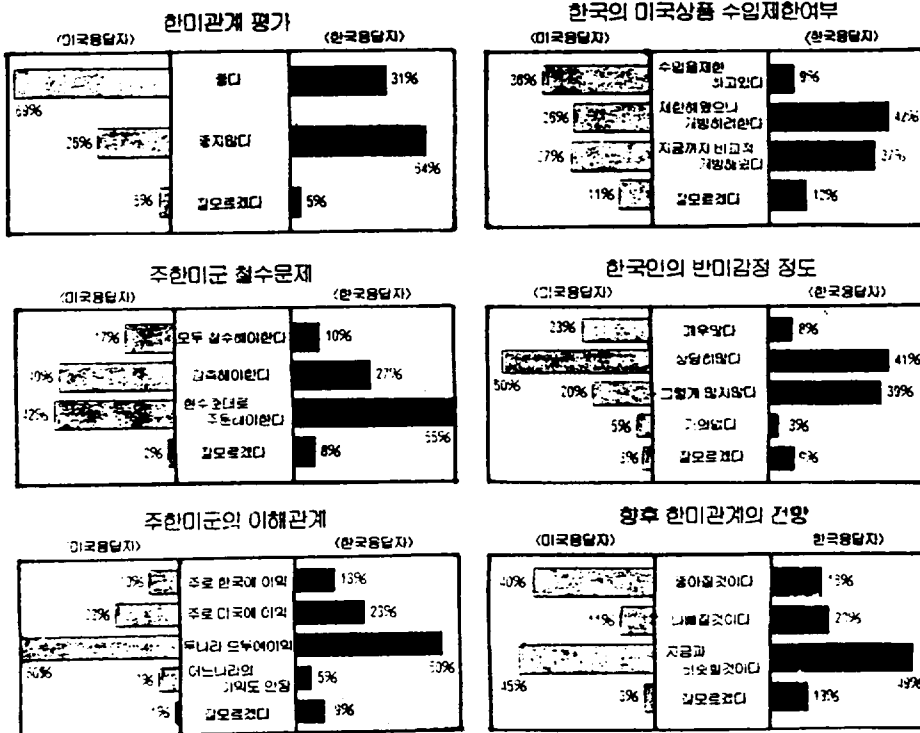
3. 김영식, “反美感情의 政治·經濟的 현상과 전망,” 「국제정세」, (1990. 3), pp. 34~43 참조.

전자제품 등 첨단제품을 美國市場에 수출하여 막대한 흑자를 내고 미국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바, 이러한 한국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주둔시켜 수십억달러의 군사비를 소모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과의 貿易摩擦이 심화되면서 日本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을 "제2의 日本"으로 보려는 경향마저 대두되었다.

셋째, 兩國國民 접촉과정에서 갈등적 양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國民間의 직접접촉은 양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兩國關係에 큰 영향을 미친다. 韓國의 주관적, 감정적, 인간주의적 문화와 미국의 실용적, 개인주의적 계약문화는 접촉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을 발생시킬 소지를 갖고 있다. 동양에서는 좁은 범위의 집단주의가 우세하나, 美國에서는 개인주의적 바탕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民主的 생활방식이 우세하다. 그동안 100만명이상의 美軍이 韓國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도 美軍과 그 가족 등 5만명 이상이 韓國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韓國人의 준법정신 결여 등으로 韓國人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韓國에서 근무했던 美軍들이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면 韓·美關係에 더욱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70년대 이래 본격화된 이민으로 미국에는 100만명 이상의 僑胞가 살고 있으나 美國社會에 동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단기간에 성공하겠다는 생활태도로 인해, 美國人들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이며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식되어 文化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韓人僑胞들의 經濟活動이 주로 하위계층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로스엔젤레스 흑인폭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1989년말에 실시된 韓·美關係에 대한 兩國國民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좋은 편이나 우려의 여지도 없지 않다. 전반적인 韓·美關係에 대해서 美國人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韓國人들은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駐韓美軍에 대해서는 撤收 또는 減縮해야 한다는 의견이 美國人의 경우 57%에 이르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通商問題에 대해서는 美國人의 36%가 韓國이 수입제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韓國人의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反美데모 등으로 나타나는 反美感情에 대해 美國人의 73%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韓·美關係의 장래에 대해서는 美國人들이 韓國人보다

韓·美關係에 관한 兩國國民 여론



(자료 : 東亞日報·美해리스社 공동조사('90. 1. 1 동아일보 보도))

훨씬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양국민의 인식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韓國人은 과거 美國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했고 맹목적인 기대를 했으나 美國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면서 그러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대학생과 농민층에 확산되고 있는 反美感情도 共產圈의 붕괴 등에 힘입어 진정되고 있으며 韓國國民의 75% 정도가 韓·美關係를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다.

美國人의 韓國에 대한 인식도 80년대 초에만 해도 전반적으로 韓國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부정적이었으나 '92년 3월초에 발표된 미국 켈럽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韓國에 대한 認知度가 매우 높아지고 이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지난 79년 조사에 비해 韓國認知度는 10~20% 향상되었고 韓國에 긍정적인 반응이 53%

4. 「조선일보」, 1992. 3. 7 보도.

로서 일본 51%, 중국 46%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론지도층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75%로서 일본 66%, 중국 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美國의 反日感情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도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包括的 同盟關係로 發展되어야 할 韓·美關係〉

冷戰以後時代의 國際秩序 再編過程에서 韓·美兩國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協議를 해오고 있다. 걸프戰과 北韓核問題 처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外交安保上의 문제일 뿐이다. 韓國의 市場開放問題를 포함한 通商問題나 우루과이라운드 協商問題 등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불신과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는 反美運動의 감소추세와 美國民의 對韓 認識의 긍정적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美國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균형자 또는 안정자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나, 미국제일주의의 여론 추세와 經濟的 부담능력의 제한을 받지않을 수 없다. 美國의 입장에서 볼 때, 韓國의 戰略的 중요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美國은 韓·美關係를 비롯하여 冷戰體制下에서 형성된 外交安保戰略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물론 韓·美安保關係는 韓半島 冷戰構造가 종식되고 平和構造가 정착 될 때까지 기본 골격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韓·美關係도 冷戰以後時代의 새로운 世界秩序 次元에서 재검토될 것이 틀림없다.

변화의 시기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지만 새로운 기회도 주어진다. 韓·美關係의 發展도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내다 보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論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는 韓·美關係를 포괄적 同盟關係(comprehensive alliance)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물론 그 이후의 戰略環境을 고려할 때도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美國의 아·태지역과의 관계도 유럽이나

다른 지역과의 관계못지않게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 中國과 같은 아시아의 강국과는 불가피하게 競爭關係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韓國과 美國은 여러가지 면에서 競爭보다는 相互補完的 關係가 될 수 있다. 韓國은 軍事的, 宗敎的, 敎育文化的인 면에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美國과 긴밀한 유대關係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통일된 韓國은 지정학적 위치, 인구, 經濟力 등에서 美國의 유력한 同盟國이 될 수 있다.

經濟技術冷戰의 시대에는 문화적 요소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美國의 合理的 文化와 한국의 東洋的 文化가 결합됨으로써 日本, EC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産業革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韓·美關係가 단순한 安保的 同盟關係에서 經濟的, 科學技術的 同盟關係로 擴大·發展될 수 있다면, 韓·美間의 通商摩擦은 포괄적 同盟關係를 고려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 美國은 개발사안에 대한 협의보다도 4~5명의 각료급이 동시에 참석하는 연례정책협의회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韓·美關係 110년을 회고해 볼 때, 부정적인 면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1945년 이후 美國의 역할이 없었다면 韓國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자명해진다. 3대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는 韓國으로서는 「遠交近攻」的 外交戰略이 21세기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韓·美關係를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相互補完的 同伴者 關係로 發展시켜야 한다. 冷戰時代에는 韓國은 열세한 同盟國으로서 通商問題 등에서 미국의 特別配慮를 요구했으며, 美國은 우세한 同盟國으로서 韓國에게 필요한 支援을 제공하는 대신 韓國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韓國人은 더 이상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美國에 대해 당당한 입장에서 協力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이 지나친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美國에 도전적으로 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GNP 15위 수준이고 美國에 비해서 經濟與件이 비교적 좋은 韓國이 美國에 대해 特別配慮를 요구한다면 美國人들은 이를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의 입장에서 한국을 경쟁대상국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經濟冷戰時代의 새로운 同盟國으로서 2차대전후 구주와 일본의 재건을

支援했던 政策과 유사한 政策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은 우월적인 입장에서 韓國에 대한 政策을 추진함으로써 民族主義的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韓·美兩國은 공동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文化的으로 상이하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적응적 정책만으로는 兩國關係를 포괄적 同盟關係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企業人 또는 商工人間의 經濟協力을 위한 포럼을 설치한다든가 軍事科學技術 共同開發, 산업용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環境問題에 대한 技術開發, 敎育改革, 마약통제, 法과 秩序確立, 地域社會開發 등 다양한 부문에서 韓·美間 協力體制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民間外交를 통해 國民間의 紐帶關係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民主國家에 있어서 對外政策은 국민여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外交的 측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간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다면 兩國關係는 보다 깊이 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民間外交 活動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韓國人은 韓國의 반미시위가 美國人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며 韓國의 무역관행이 美國人들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韓國人은 美國의 심각한 財政赤字, 貿易赤字, 失業問題 등을 이해함으로써 美國의 對韓政策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美國의 입장에서는 韓國이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產業에 대한 保護支援政策이 당분간 불가피하며, 근검절약운동도 국민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美國은 世界 超強大國으로서 세계 여러나라 문제에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韓國에 대해 관심도 적고 이해하는 정도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美國이 韓國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韓國이 美國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美 兩國關係를 발전시켜야 할 부담이 美國人들보다는 韓國人들에게 더 크게 지워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韓國은 日本이나 臺灣의 美國內 로비활동과 여론조성 활동과 유사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韓·美兩國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긴밀한 同伴者로서 協力하기로 하였다. 韓國은 새로운 世界秩序를 構築함에 있어서 긴밀한 韓·美關係를 중심축으로 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